

#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정재철\*\*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본고는 개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네트 상에서 제기하고 동일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안티닉스 운동을 사례로 삼아 운동의 공론화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와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안티닉스 운동은 사이트 운영자와 그를 따르는 적극적 참여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전반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의 다양한 운동 전략이 사이트 방문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안티닉스 운동의 성공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의 공론장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욕설과 비방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전통적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에 가깝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논쟁의 요소가 지나쳐 공론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이성적인 참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판 운영자의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대응 역시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장이 전통적인 공론장에 가깝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온라인 시민사회 운동, 공론장, 게시판

---

\* 이 연구는 200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jchungds@dankook.ac.kr

## 1. 들어가는 말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영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시민운동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를 중심으로 네티즌의 자발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간은 사회문제의 논의와 갈등과 해결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이란 인터넷상의 시민 사회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특히 웹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시민적 권리를 찾기 위한 제반의 활동 전체를 말한다.

사실상, 2000년대 들어 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민 사회운동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민 사회 내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시민운동의 행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오프라인 중심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인터넷을 중요한 활동 도구로 하여 자신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사회운동의 형태이고 주로 안티 운동과 같이 문제의 제기과 조직, 해결의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사실상,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상에서의 시민 사회운동은 소수 전문가 중심의 엘리트적인 시민운동 단체였다. 그리고 시민 사회운동 단체들 간에는 지속적인 연대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의 진화는 개인도 도메인을 얻어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사이트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규합하여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기성세대는 물론 청소년들조차 특정한 주장을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말머리 달기, 로고와 배너 달기, 온라인 토론,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시민 사회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이 시민들의 저항과 대안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안티-넉스 운동과 같은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에 있다. 과거 산업시대의 시민 사회운동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계층, 계급에 기반을 둔 집단의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에는 공유해야 할 이념과 목표, 과제와 규율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특성상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혹은 개별 단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개별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네트 상에서 문제 제기하면 동일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온라인 시민운동의 형태가 한국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작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던 ‘독도 지키기 운동’이나 ‘개똥녀 사건’,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 사건과 같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인터넷의 게시판에 오르면 순식간에 자기 복제되면서 정보가 확산되고 이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힘과 압력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관심을 갖고 분석하려는 부분은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개인이 주도하는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이슈와 운동 참여자의 연대 그리고 동원을 위한 공론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 사실상, 사이버 공간은 그 기술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결합되는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의 기술적 특성은 물리적인 접속장치, 대역(bandwidth), 프로토콜(protocol),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 등에 따라 정해지며, 사회적 특성은 사용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방식, 경계와 개방성, 정체성의 단서, 상호작용의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 역시 이러한 기술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규정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이트가 영구 보존되어 있는 온라인 안티닉스 운동의 이슈 공론화, 연대 그리고 동원에 관련된 공론화 과정 분석을 통해 안티닉스 운동이 어떻게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 및 성찰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안티닉스 운동의 시발점은 1999년 10월 7일에 닉스사가 공모했던 3억짜리 1등 도메인 ifree.com 선정 및 수상작을 발표한 뒤 네티즌들이 닉스 사 게시판 nixinternet.com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인이라는 네티즌은 보다 구체적 행동으로서 초기 홈페이지 모습의 안티닉스 사이트 ihateifree.com을 개설하였다. 이후 1999년 10월 20에는 언론사에 닉스의 도메인 공모가 사기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뒤 10월 22일 네티즌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면서 구체적인 닉스 반대 시민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 11월 23일 닉스 사는 1차 사과문을 발표하고 1등 상금 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발표한 뒤 12월 29일(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위해 사회 환원금으로 3억 원을 닉스가 기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0년 1월 4일 사이버행동네트워크 사이트 ni19가 오픈 되었고 2000년 1월 28일 닉스의 요청으로 ihateifree.com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2000년 5월 17일 중앙 2개 일간지에 사이버행동네트워크 이름으로 경과가 보고된 후 안티닉스 운동은 종결되었다.

## 2. 이론적 배경

### 1)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과 공론장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은 오프라인 운동과 달리 네트의 운동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네트의 기술적 특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경계와 틀을 뛰어 넘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과 집단의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운동을 행위자들이 의미를 창출하며 의사를 소통하고 협상하여 의사를 결정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한 멜루치(Melucci, 1988)의 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는 정보화 사회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멜루치는 행위자들이 의사를 소통하고 협상하여 의사를 결정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집단 내부에서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멜루치에 의하면, 집합적 정체성이란 다수의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운동의 목표와 수단 및 환경에 대한 정의를 공유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닌 행위자로 정의하고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운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멜루치의 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는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집합적 정체성을 통해 연대와 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 운동 행위자들 간에 의사를 소통하고 협상하는 공론의 장이 필수적임을 드러내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attari, 1998)의 분자운동과 횡단성의 정치라는 개념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전개되는 온라인 사회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각적인 연대와 동원의 전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분자운동'이란 각각의 분자적 개개인이 상이한 이해관계에 근거해 자신의 주변에 퍼져 있는 일상적 파시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들이 마치 '눈덩이 효과'처럼 대규모로 모아지면서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제로 확대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횡단성'이란 명령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전통적 역할 분배를 거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수립해 타인과 다른 집단 그리고 자신 외의 영역과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일상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분자 운동들과

그것들 간에 형성되는 횡단성의 정치가 바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새로운 사회 운동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타리(Guattari, 1998)는 정보화 시대의 사회운동에서 중심의 권위와 권력이 만들어낸 동질성의 언어를 부정하는 한편 다양한 개체의 '복수성'이 엮어내는 수평적 결합을 모색하는 리즘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가타리의 리즘 모델을 차용하여 네트의 실천을 모색하는 웨이(Wray, 1998: 백옥인, 52-53쪽에서 재인용) 역시 인터넷이 지닌 수평적 구조와 가타리의 비위계적인 리즘 모델 간에 많은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평적으로 산재한 개체들이 접속을 통하여 연대와 결속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저항의 거점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델루치, 들뢰즈, 그리고 가타리의 논의는 정보화 시대의 네트 운동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써 유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네트와 사이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 사회운동의 핵심은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공론의 장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공론장 가능성에 대한 이론화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론장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자유주의적 공론장이며 다른 하나는 담론적인 공론장이다. 이 두 유형 모두 정치 시스템에서 중앙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매개체계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담론적인 공론장은 시민사회의 사회운동과 자발적 결사 그리고 이성적인 대화와 합의를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레 등(Ferree et al, 2002a; 2002b; 조항제, 2005에서 재인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공론장을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여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따라 대의제 자유주의 공론장, 참여 자유주의 공론장, 담론주의 공론장, 구성주의 공론장 이론으로 분류한다.<sup>1)</sup> 이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담론주의

이론인데, 이 이론은 공론장에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강조하며, 시민의 일상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율적 행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돈이나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우므로 더 깊게 더 자유롭게 숙의할 수 있다고 본다(조항제, 2005, 12쪽). 사실상, 이와 같은 담론적 공론장의 일반적인 개념은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행동하는 자발적 결사이며, 여론에 근접하는 어떤 것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서 하버마스로부터 정립되었다.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공론장 가능성과 연관시킨 논의가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상현(2000)과 조동기 외(2001b) 등은 오늘날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뉴스그룹과 토론 게시판에서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는 무수한 토론들이 바로 공론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실상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소속, 신분, 지역, 나이 등을 뛰어 넘어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발언 주체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버스페이스가 제공

- 
- 1) 대의제 자유주의 이론은 엘리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공론장을 지배하며, 상충하는 의견끼리의 역관계는 다수결을 따른다. 공론장에 포용되는 일반 시민은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다는 수준에서 중요할 뿐이다. 이 모델은,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이해 관계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종결의 준칙을 준수한다. 참여자유주의 이론은 대중은 정보 습득, 대화, 논쟁, 숙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한다. 참여가 개인을 공적인 시민으로 바꾸는 기제인 것이다. 이 모델에서 엘리트나 전문가의 지배, 의사 합의는 거부되며, 미디어의 담론은 시민에게 참여를 권장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가 된다. 구성주의 이론은 정치 과정이 조건제한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측면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해 구성주의로 불린다. 이 이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며, 그런 만큼 다른 어떤 이론보다 공론장에서의 대중 포용을 강하게 외치고, 엘리트나 전문가의 지배를 거부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차이의 인정, 다양성의 보장에 있으며 복수의 공론장들을 주장한다. 이 이론은 합의 보다는 정치 담론의 확장과 그 정치 공동체의 확대를 강조한다(Ferree et al, 2002a; 2002b; 조항제, 2005에서 재인용).

하는 익명성은 현실세계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공론장의 개념과 잘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동기 외 (2001b)의 논의에 따르면 온라인 사회운동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이슈의 초기화에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에 더해 온라인 사회운동은 그 특성상 연대와 동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위한 제반 이슈에 대한 논의가 공론장으로서의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실상,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그리고 집단과 개인 사이의 다양한 연대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나아가 공론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실제공동체와 가상공동체의 결합, 그리고 연대된 공동체 조직의 정치적 확장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담론적 공론장의 논의에 더해 최근에는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개념이 추가되어 논의되는 추세에 있다. 이기형(2003, 28-29쪽)의 난장에 대한 논의는 하버마스식의 토론과 숙의에 기반을 둔 담론적 공론장을 확대시켜 공론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종류의 대화와 발화, 길들여지지 않은 대중적인 욕망과 즐거움의 발현까지도 포함하면서 다수의 난장 모델(wild publics or counter-public sphere)으로서 공론장 이론의 변화를 모색한다. 이에 더해, 김정년·김재영(2005)의 담론적 공론장 논의는 전통적 공론장에 난장적 성격을 가미한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역시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의 해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담론적 공론장 이론에 대한 논의는 공론장이 복수일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온라인 공론장의 재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2) 기존 문헌 검토

온라인 시민사회 운동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어 이와 관련된 논문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 주제와 관련해 발표된 논문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향후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전망이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개념에 (양세진, 2001; 하승창, 2002; 민경배, 2002; 정연정, 2003) 관련된 글들이 있다. 두 번째는 집합행동의 특징에 (최은정, 2000; 조동기 등, 2001) 관련된 글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학위 논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게시판 글들을 분석한 인터넷 경험적 연구(이경완, 2000; 김승연, 2001; 최방식, 2002)를 들 수 있다. 부가적으로, 온라인 시민사회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들은 아니지만, 인터넷 미디어와 공론장에 관련된 논문들(대표적으로 이기형, 2004; 김정년·김재영, 2005의 논문)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위의 글들에서 본고의 연구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성격과 집합행동의 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은정(2000)은 네티즌의 갈등 구조와 집합 행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했다. 최은정은 인터넷을 통한 집합 행동 주체 세력의 중심은 10대와 20대에 몰려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공유된 사안일수록, 그리고 특정 계층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일수록 공론화에서 집합행동에 이르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최은정은 한국 사회에서 단일 현안 운동에 바탕을 둔 집합행동 증가의 원인은 첫째, 인터넷 절대 이용자 수 증가, 둘째,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들 수 있는데, 인터넷은 각 시민단체 간의 연대 또한 용이하게 해주는데, 배너를 교환한다든가 서로 링크를 시켜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가 오프라인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7-80년대 운동의 이슈들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은 일상영역의 문제까지 공론화되고 운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신사회운동의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인터넷이 다양한 이슈의 시민운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집합행동의 참여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의 권리이자 의무로 개인들에게 인식되는 문화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000, 4-5쪽).

조동기 등(2001b, 23쪽)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과 집합 행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조동기 등은 사이버 공간의 기술적 특징은 탈개인화에 따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약화되고 분위기에 쉽게 편승하여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한다. 또한 사이버 시민운동은 이미 해결된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하게 지속될 수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채 잔존할 수도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민경배(2002)의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민경배는 온라인 네트워크는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취향, 공통의 지향점 등이 의미의 네트워크를 매개하는 새로운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의미의 네트워크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이고 탈권위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의미의 네트워크는 노사모처럼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상의 논문들에서 드러나는 연구 결과들은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 운동은 첫째, 저비용 고효율의 시민 사회운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사회적 약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셋째, 주류 매체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는 쟁점이나 주제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이 조직이나 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와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의 상대적 익명성과 신체적 단서의 결여는 사람들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집합적 행동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위의 연구 결과들은 사이버 공간의 기술적 특징은, 탈개인화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분위기에 쉽게 편승하여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은 이미 해결된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하게 지속될 수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채 잔존할 수도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간략히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에 관련된 주요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공론장의 이론적 배경과 온라인 사회운동 관련 문헌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안티닉스 운동을 사례 분석하려 한다. 특히,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효율적이며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 문제 1.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연구 문제 2.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 3. 연구 방법

본고에서 온라인 시민운동 분석을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있었던 닉스 도메인 시민운동에 대한 사례분석 방법이다. 사례분석(case study)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구체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나 현상의 배경, 추이, 결과 등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방법이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Rogers & Domminick, 1994).

따라서 본고에서 채택한 사례연구의 대상은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1999년 10월 11일부터 2000년 5월 17일 사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닉스도메인 반대 온라인 시민운동이다. 이 안티-Nix 운동을 사례 연구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이 운동이 네티즌의 대중적인 참여, 웹상의 서명운동, 게시판 등을 통한 치열한 공방, 각종 자료의 공개 등 사이버운동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네티즌의 자발적 운동에 시민단체가 결합하여 보다 운동성을 강화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안티닉스 운동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ihateifree.com](http://ihateifree.com) 사이트에 영구 보관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전개되었던 시민운동의 전체적인 기록이 남겨진 거의 유일한 온라인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기간 동안만 사이트가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이버 시민운동과는 달리 안티-Nix 운동은 운동의 주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 분석 대상

안티-Nix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전자서명운동, 시위 참여그룹의 아이디,

성명, 성별, 직업, 참여 동기가 비교적 소상히 남겨져 있다. 또한 온라인 시민 운동이 진행되었던 일자, 온라인 시위의 방법, 온라인 시위의 소통과 결속을 위해 사용되었던 전략이 다음의 ihatefree.com의 게시판들에 소상히 게시되어 남아있다.<sup>2)</sup> 따라서 본고는 여러 가지 게시판들 중에서 메인 게시판에 남겨진 10월 11일 (사이트 개설일)부터 12월 20일 (안티닉스 운동 해체일) 사이 등록 된 2930건에 담겨진 게시글들을 초기 안티닉스 운동 이슈의 공론화 과정인 전반부 (10월 11일~20일)와 안티닉스에 대한 연대와 동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반부 (10월 21일~12월 27일)로 나누어 질적이면서도 동시에 담론의 양적인 체계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닉스 도메인 반대 온라인 시민운동의 공론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 2) 분석 유목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 문제, 즉 누가 어떤 과정으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채택한 분석 유목은 게시판 글의 유형, 조회수, 주요 사건, 그리고 5회 이상 참가한 ID들이다. 이에 더해 안티닉스 운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과하면서 게시판 글들에서 보이는 유사한 패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메인 게시판과 더불어 다양한 부가적인 게시판들은 안티닉스 운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역시 중요한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 상정했다.

두 번째 연구 문제, 즉 담론의 특징을 내용 분석하기 위해 채택한 첫 번째 분석 유목은 글의 유형이다. 글의 유형은 게시글, 머리글, 그리고 댓글로 분류

2) 다음은 개설되었던 게시판들이다. ‘영원한 의혹/영원한 분노/영원한 투쟁’, ‘항의 시위 방법’, ‘증거 자료 제보’, ‘이성적 토론방’, ‘네티즌 행동 운영진에 바란다’, ‘사이버 행동상황관, 행동수기’, ‘시위도구 모음’, ‘전자서명 게시판’, ‘닉스에 바란다’, ‘반닉스 행동그룹 등록’, ‘반닉스 유머란’, ‘SOS (긴급공지)’, ‘네티즌 의견 모으기’

되었다. 두 번째 분석 유목은 의견 논조의 유형이다.<sup>3)</sup> 보다 구체적으로 이 유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찬성(안티닉스의 논조에 찬성하거나 안티닉스 반대 의견에 비판적인 의견), 2) 반대(안티닉스의 논조에 반대하거나 안티닉스 찬성 의견에 비판적인 의견), 3) 중립(안티닉스의 논조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의견), 4) 기타(안티닉스의 논조와 관련 없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의견).

두 번째 분석 유목은 상호작용 유형이며, 이들 유형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단발형(댓글이 없어 상호작용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2) 동조형(이어지는 댓글이 선행 의견과 논조를 같이 하는 경우), 3) 반박형(이어지는 댓글이 선행 의견과 논조를 달리하는 경우), 4) 논쟁형(복수의 참여자들이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이는 경우), 5) 수렴형(복수의 참여자들이 논쟁을 벌이다 한쪽이 다른 쪽 의견으로 수렴되는 경우), 6) 혼란형(별 의미가 없는 댓글들이 섞여 있어서 의미 파악이 혼란스러운 경우), 7) 기타(위의 상호 작용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석 유목은 글의 성격이다. 글의 성격은 유형별로 1) 의견/주장, 2) 질문, 3) 질문에 대한 대답, 4) 퍼온 글, 5) 욕설, 6) 지지/축하, 7) 비난, 8) 건의/부탁/충고, 9) 광고, 10) 기타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분석 유목이 선정되어 코딩지가 작성된 후 10명의 코더들이 200-300개의 게시판 글을 할당받고 훈련 받은 후 코딩이 이루어졌다. 코딩 결과는 SPSS에 입력되어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코더간 신뢰도 결과는 홀스타(Holsti, 1969)의 공식에 의해 계산한 결과 95%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 유목의 일부는 본 논문의 공론화 과정 연구 목적과 유사해서 김정년과 김재영의 논문 『오마이 뉴스 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부분 수정해 차용했다.

#### 4. 분석 결과

안티-닉스 운동 사이트는 여러 개의 게시판을 기반으로 다양한 담론 행동 프로그램들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의 참여자들은 그 구체적 내용과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게시판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행동들을 수행해 나갔다. 본고에서는 무엇보다 우선 공론화 과정에 사용된 메인 게시판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였으며 어떤 담론의 특징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표 1> 날짜별 주요 주제와 사이트 참여자 현황

날짜	게시글	머리글	댓글	조회수 (평균)	주요 사건	5회 이상 참여자
10.11	3 (7.5%)	26 (65.0%)	11 (27.5%)	20678 (517)	안티닉스 사이트 개설	0명
10.12 -13	3 (1.1%)	186 (65.5%)	95 (33.5%)	22414 (79)	안티닉스 개설자의 질문에 대한 닉스의 답변	5명
10.14 -15	122 (23.3%)	211 (40.3%)	189 (36.1%)	23353 (45)	닉스 직원 사이트 도배 시작, 닉스 직원 도배에 관한 제보 들어옴	17명
10.16 -19	20 (7.5%)	140 (52.2%)	107 (39.9%)	24923 (93)	닉스의 게시판 도배 인정	9명
10.20	-	43 (54.4%)	36 (45.6%)	5342 (68)	닉스에 관한 제보 문건 접수	5명
합계	148	606	438	96710	-	36명

\* 5회 이상 참여자 ID

10월 12~13일 5회 이상 참여자 ID: 감사원, 한국인, 생각맨, 아리송

10월 14~15일 5회 이상 참여자 ID: 감사원, L22CH, 간나, 개새까 그만해, 김성훈, 노가리, 니  
뽕 닉스사장 미국에서, 반닉스맨, 보신탕집, 불도그, 우하하, 진짜운영자, HOTIZEN, mn,  
vhffltm

10월 16~19일 5회 이상 참여자 ID: 고만하고 니목소리내라, 반사기, 불도그, 생각맨, 일필요없  
단거 아시죠, 찢어킨 닉스칭바지, 프라이임, HOTIZEN, newworld

10월 20일 5회 이상 참여자 ID: 생각맨, 패션인, 프라이임, 플래시달인, newworld

### 1) 안티-Nix 운동 이슈 초기 공론화 특징

모든 사회운동의 첫 출발은 항상 특정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사회체계 내에 구조화된 불만이나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형성되고 이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의미가 확산되는 과정은 거의 모든 사회운동론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다.

앞의 <표 1>은 안티닉스 사이트가 만들어 진 후 10월 11일에서 10월 20일 사이 안티닉스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게시글 수, 머리글 수, 댓글 수, 조회수, 주요 사건 그리고 5회 이상 참여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첫째, 무엇보다 안티닉스 운동 초기에 적극적 참여자(프라이임, 생각맨, new-world, 감사원 등)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참여자는 특정 이슈가 발생한 시점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횟수를 기준으로 볼 때 대략 5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자, 5회 이하의 소극적 참여자 그리고 사이트 접속으로 그치는 관망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표 1>은 vhflltm이라는 ID를 가진(후에 닉스 직원으로 밝혀졌음) 네티즌이 안티닉스를 비방하는 도배 글을 올리면서 머리글과 댓글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5회 이상 참여자의 숫자 그리고 조회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민사회 운동의 대중적 관심의 계기는 네티즌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건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은 도배성 글의 전체 분량이다.

한국인이 10월 15일 새벽에 지운 도배성 글(300여 개)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그들이 지울 수 없는 현재 남아있는 글(200여 개) 그들이 스스로 지운 글(50여 개) ### 총 550여 개 ### 우하하. (이모 과장) vhflltm:(안모 대리, 웹마스터)



진짜운영자 (통합마케팅실) (비공식 채널로 확인한 결과 도배에 관한 상부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함) (안티닉스 사이트에서 발췌)

셋째, 위의 도배성 글의 분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안티닉스에 대한 이슈가 안티닉스 운동 사이트 게시판에 의해 공론화되는 초기 과정에 일반 네티즌을 가장한 닉스 측의 조직적인 음해성 도배 글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게시판에서 안티닉스에 대한 반대 의견과 다른 시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가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이버스페이스 공론장의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티닉스 운동은 이러한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이성적 대화방> 게시판의 추가적 이용, 그리고 <증거 자료 제보> 게시판을 이용해 안티닉스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배성 글을 올린 ‘우하하’의 IP주소를 추적해 그 신원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혹은 닉스사 전 직원의 제보 등을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운동 초기 이슈의 공론화 단계의 성공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증거 제보와 함께, 오프라인 시민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추가 게시판을 이용해 이성적인 대화와 증거 확보를 유도한 안티닉스 운동 사이트 개설자의 창의적인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트 운영자인 한국인은 이 사이트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 ‘네티즌, 혹은 시민의 권리 찾기’, ‘소비자 보호 운동’ 등에 대한 운동의 취지를 홍보하는 담론을 효율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지자와 증거자료 제보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부가적으로 증거자료 게시판의 내용과 증거자료 게시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거 자료 게시판>은 1999년 10월 14일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에게 개설되어 1999년 12월 5일까지 운영되었다. 이 게시판에 게재된 자료는 총 51건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은 닉스 사와의 싸움에 필요가 되는 증거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게시판에 글의 게시자들을 살펴보면 총 51건

가운데 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은 감사원이 19건, Domain4u가 7건, 한국인이 4건, 생각맨 3건, ihatenix 2건, newworld 2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게시판에 올린 제보 글의 제목은 <닉스 직원들의 IP>이다.

1999-10-16 아이네트의 허진호는 인터넷 사업 고문으로 수차례 같이 회의를 했으며, 회의 때마다 참석함. 다음은 닉스직원들 203.239.67.x 우하하 203.239.67.222 nix-in 이재근 과장 vhlftm from 203.239.67.202 Nix-in 안우정 대리 210.91.38.244는 통합마케팅실

다음으로 <이성적인 토론방>의 경우 1999년 10월 14일에 개설되어 10월 29일까지 게시판에 올린 글은 총 182건으로서 4건 이상 올린 네티즌들은 감사원 11건, 생각맨 11건, newworld 11건, 김상선 8건, 총무 6건, 조양호 6건, ihatenix 5건, 아리송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성적인 토론방 역시 소수의 적극적 추종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사회운동 역시 안티닉스 운동 사례에서 발견되는 점은 사이트 운영자의 창의적 전략과 적극적 참여자의 주도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서 올려진 글들을 통해 전반부 게시판 글에서 형성된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2> 전반부 게시판 글의 유형별 의견 논조의 유형

의견 논조 \ 글의 유형	게시글	머리글	댓글
안티닉스 찬성	89 (60.1%)	368 (60.7%)	222 (50.7%)
안티닉스 반대	-	100 (16.5%)	32 (7.3%)
안티닉스 중립	9 (6.0%)	54 (8.9%)	54 (12.3%)
기타	50 (33.8%)	84 (13.9%)	130 (29.7%)
합계	148 (100%)	606 (100%)	438 (100%)

(카이제곱=187.621, 자유도=12, P< .001)

위의 <표 2>는 안티닉스 운동에 대한 찬성이 게시글의 경우 60.1%, 머리글의 경우 60.7%, 그리고 댓글의 경우 50.7%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게시판 글의 의견 논조가 안티닉스 운동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글의 16.5%가 안티닉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닉스 직원의 도배성 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전반부 게시판 글 유형 별 상호 작용 유형

상호 작용 \ 글의 유형	게시글	머리글	댓글
단발형	64 (43.2%)	439 (72.4%)	33 (7.5%)
동조형	6 (4.1%)	61 (10.1%)	130 (29.7%)
반박형	1 (0.7%)	30 (5.0%)	107 (24.4%)
논쟁형	15 (10.1%)	27 (4.5%)	78 (17.8%)
수렴형	1 (0.7%)	1 (0.2%)	8 (1.8%)
혼란형	1 (0.7%)	18 (3.0%)	35 (8.0%)
기타	60 (40.5%)	30 (5.0%)	47 (10.7%)
합계	148 (100%)	606 (100%)	438 (100%)

(카이제곱=627.344, 자유도=24, P< .001)

위의 <표 3>에 나타난 게시판 글 유형별 상호 작용 유형을 살펴보면 게시글의 경우 단발형의 경우 43.2%, 논쟁형의 경우 10.1%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글의 경우는 단발형이 72.4%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동조형 10.1%, 반박형 5.0%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의 경우, 동조형 29.7%, 반박형 24.4%, 논쟁형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2>의 분석 결과와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안티닉스 운동의 게시판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주장을 단발형이나 논쟁형으로 글을 올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머리글의 경우는 자신들의 의견/주장을 단발적으로 개진하거나 선행의견에 동조 혹은 반박하는 경향이 있고 댓글의 경우는 안티닉스 의견에 동조하거나 안티닉스를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논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전반부 게시판 글의 유형별 글의 성격

글의 성격 \ 글의 유형	게시글	머리글	댓글
의견/주장	51 (34.5%)	271 (44.7%)	58 (13.2%)
질문	1 (0.7%)	27 (4.5%)	13 (3.0%)
질문에 대한 대답	-	3 (0.5%)	46 (10.5%)
퍼온 글	3 (2.0%)	25 (4.1%)	3 (0.7%)
욕설	-	29 (4.8%)	40 (9.1%)
지지/축하	1 (0.7%)	31 (5.1%)	107 (24.4%)
비난	16 (10.8%)	114 (18.8%)	88 (20.1%)
건의/부탁/충고	10 (6.8%)	53 (8.7%)	25 (5.7%)
광고	6 (4.1%)	8 (1.3%)	1 (0.2%)
기타	60 (40.5%)	45 (7.4%)	5.7 (13.0%)
합계	148 (100%)	568 (100%)	438 (100%)

(카이제곱=520.251, 자유도=40, P< .001)

위의 <표 4>는 게시판 글의 유형 별 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표 4>는 게시글의 경우 의견/주장이 51%, 비난이 10.8%, 건의/부탁/충고가 6.8% 순으로 나타났다. 머리글의 경우 의견/주장이 44.7%, 비난이 18.8%, 건의/부탁/충고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댓글의 경우 지지/축하가 24.4%, 비난이 21.1%, 의견/주장이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욕설은 머리글이 4.8%, 댓글이 9.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게시판의 글들이 운동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숙의와 토론에 가까운 공론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비교적 안티닉스 게시판은 공론의 장으로서 건강하게 운영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2) 연대와 동원 기간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특성

아래 <표 5>은 안티닉스 운동이 구체적으로 연대를 위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속하고 사이버 시위를 시도하고 닉스 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네티즌 행동이 해체되기까지의 공론화 과정에 발생했던 게시판 글의 조회수, 주요 사건, 참여자 ID에 대한 정보이다.

<표 5>는 안티닉스 사이트가 만들어진 후 10월 21일에서 12월 27일 사이 무엇보다 안티닉스 운동 초기 적극적 동조자 (프라임, 생각맨, newworld, 감사원 등)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 단계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적극적 참여자 ID들의 동조 혹은 반대 추종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동조의 의미를 갖는 ID 추종>

감사원 → 감사원2, HOTIZEN → KIDIZEN, 행동 → 행동2, 행동3

생각맨 → 심각맨, 궁금맨, 담담맨, 동정맨, 한국인 → 황용수

반닉스 → 반닉스2, 반닉스21, 무대뽀 → 무대뽀팬

<표 5> 날짜별 주요 주제와 사이트 참여자 현황

날짜	게시글	머리글	댓글	조회수 (평균)	주요 사건	5회 이상 참여자
10.21-22	1 (2.0%)	32 (64.0%)	17 (34.0%)	3493 (70)	네티즌 비상대책위 구성 제안	4명
10.23	-	17 (85.0%)	3 (15.0%)	1599 (80)	닉스, 비상대책위 찾아감	2명
10.24	-	10 (62.5%)	6 (37.5%)	1231 (77)	네티즌 행동 1차 모임 및 사이버 시위 계획	0명
10.25-27	2 (2.4%)	53 (62.4%)	30 (35.3%)	7409 (87)	닉스가 비상대책위에 공문 전달	5명
10.28-11 .2	7 (5.3%)	81 (61.8%)	43 (32.8%)	18250 (139)	네티즌 행동 2차 모임	7명
11.3-4	5 (4.6%)	64 (58.7%)	40 (36.7%)	8776 (81)	사이버 행동 네트워크 발족 제안	3명
11.5-11. 20	18 (3.7%)	276 (57.1%)	189 (39.1%)	83481 (173)	닉스 해명 거짓 증거 제시	19명
11.23	10 (7.1%)	57 (40.7%)	73 (52.1%)	9142 (65)	상금 3억 원 사회환원 결정	3명
11.24-12 .26	108 (18.1%)	207 (34.7%)	280 (47.0%)	106446 (177)	환원 방법 논의	15명
12.27	1 (7.1%)	4 (28.6%)	9 (64.3%)	6140 (439)	네티즌 행동 해체	0명
합계	152	856	722	258118	-	58명

\* 5회이상 참여자 ID

10월 21~22일 : 프라임, 생각맨, ihatenix, freeself

23일 : 조양호, 생각맨

24일 : 없음

10월 25~27일 : 생각맨, 총무, 한국인, mn, newworld

10월 28~11월 2일 : 문광승, 생각맨, 총무, 프라임, 한국인 mn, newworld

11월 3~4일 : 생각맨, 조양호, 프라임

11월 5일~20일 : 김동우, 김상문, 김영진, 나그네, 문광승, 반닉스, 생각맨, 웨이, 실천하는 님, 조양호, 프라임, 한국인, 행동2, 허성렬, AntiNix, bmw, freeself, HOTIZEN, mn.

<반대의 의미를 갖는 ID 형성>

vhfftm → 반 vhfftm 아저씨, vhfftm아저씨, 하루 얼마 받아요,

무대뽕 → 유대뽕, 문광승 → 안티 문광승

또한, 셋째, 운영자를 추종하는 집단 역시 발생해 오프라인처럼 ID를 중심으로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 1620 한국인 답변하라 4444!!!!!! 무대뽀 99.11.04
- ⇒ 1619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지금은 전쟁중!! - 내용없음 김성섭 99.11.04
- ⇒ 1618 조양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답변하지요. 조양호 99.11.04
- ⇒ 1617 그리고 무대뽀 씨, 답변은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조양호 99.11.4
- ⇒ 1616 그대가 해커로 추정하는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99.11.04
- ⇒ 1617 그대 훌륭합니다.....mn mn

앞서 논의하였듯이 벨루치에 의하면, 집합적 정체성이란 다수의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운동의 목표와 수단 및 환경에 대한 정의를 공유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닌 행위자로 정의하고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오프라인 사회운동에서 운동의 리더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구조 역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삶의 모습과 사회 질서를 재현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스타처럼 활발히 활동하는 ID들을 추종하는 팬 현상이 생기고 또한 운영자 ID를 리더로서 따르고 보호하려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온라인의 공론장이 무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정 실제 삶의 공간에서의 현실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황주성 외(2002, 89쪽)가 지적하는 것처럼, 탈체현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체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체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의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없으면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에서 중요시되는 평판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티닉스 글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황용수 안티사이트 사전 각본 완전 해부라는 게시판의 글들에서 알 수 있듯이 ID를 사용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는 있지만 ID의 실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며 익명성은 온라인상에서도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1999/10/15 작성자 vhfllcm(vhfllcm@vhfflcm.vhfflcm)<게시판 무단 삭제에 대한 항의>  
황용수 씨 정말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군요. 당신과 생각이 다른 글, 당신의 처부를 밝힌 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기타 등등하여 당신의 맘에 맞지 않는 글은 임의적으로 삭제하다니……당신이 네티즌을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짝짝 밟고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난 계속 이글을 도배할꺼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시오.

1724 잘 생각해 보니 잊음 vhfllcm(안우정 대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mn  
99.11.07. 1723 일어나보니 vhfllcm(안우정 대리)놈 날랐군요! mn

위의 사례들은 언어, 사고방식, 글쓰기 양식 등과 같이 정체성을 지시할 수 있는 직접적이거나 혹은 암시적인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본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완전한 익명성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서 올려진 글들을 통해 후반부 게시판 글에서 형성된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6>은 안티닉스 운동에 대한 찬성이 게시글의 경우 82.9%, 머리글의 경우 59.1%, 그리고 댓글의 경우 57.3%로 나타나고 있어 안티닉스 운동의 전반부와 게시판 글의 의견 논조가 유사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6> 후반부 게시판 글의 유형별 의견 논조의 유형

글의 유형 의견 논조	게시글	머리글	댓글
안티닉스 찬성	126 (82.9%)	506 (59.1%)	414 (57.3%)
안티닉스 반대	3 (2.0%)	22 (2.6%)	7 (1.0%)
안티닉스 중립	7 (4.6%)	88 (10.3%)	53 (7.3%)
기타	16 (10.5%)	240 (28.0%)	248 (34.3%)
합계	152 (100%)	856 (100%)	722 (100%)

(카이제곱=54.073, 자유도=9, P< .001)

<표 7> 게시판 글 유형별 상호작용 유형

글의 유형 상호 작용	게시글	머리글	댓글
단발형	68 (44.7%)	565 (66.0%)	20 (2.8%)
동조형	74 (48.7%)	136 (15.9%)	350 (48.5%)
반박형	2 (1.3%)	61 (7.1%)	154 (21.3%)
논쟁형	4 (2.6%)	34 (4.0%)	69 (9.6%)
수렴형	2 (1.3%)	11 (1.3%)	42 (5.8%)
혼란형	-	6 (0.7%)	14 (1.9%)
기타	2 (1.3%)	43 (5.0%)	73 (10.1%)
합계	152 (100%)	856 (100%)	722 (100%)

(카이제곱=733.196, 자유도=21, P< .001)

<표 7>에 나타난 게시판 글 유형별 상호 작용 유형을 살펴보면 게시글의 경우 단발형의 경우 43.2%, 논쟁형의 경우 10.1%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글의 경우는 단발형이 72.4%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동조형 10.1%, 반박형 5.0%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의 경우, 동조형 29.7%, 반박형 24.4%, 논쟁형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6>의 분석 결과와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의견/주장을

단발형이나 논쟁형으로 글을 올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머리글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주장을 단발적으로 개진하거나 선행의견에 동조 혹은 반박하는 경향이 있고, 댓글의 경우는 안티닉스 의견에 동조하거나 안티닉스를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논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에 나타난 게시판 글 유형별 상호 작용 유형을 살펴보면 게시글의 경우 단발형의 경우 44.7%, 동조형의 경우 48.7%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글의 경우는 단발형이 66.7%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동조형 15.9%, 반박형 7.1%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의 경우, 동조형 48.5%, 반박형 21.3%, 논쟁형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7>의 분석 결과와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앞서 운동 초기 게시판 글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주장을 단발형이나 논쟁형으로 글을 올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머리글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주장을 단발적으로 개진하거나 선행의견에 동조 혹은 반박하는 경향이 있고, 댓글의 경우는 안티닉스 의견에 동조하거나 안티닉스를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논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안티닉스운동에 대해 논리적인 논쟁을 통한 깊이 있는 숙의의 현상이 게시판에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성은 사이트 운영자의 온라인 운동 전략과 부수적인 장치들에서 부분적으로 극복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첫 번째 그 주요한 이유는, 토론의 중재자로서의 사이트 개설자와 적극적 참여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공론화 과정은 익명성으로 인해 여론 형성 보다는 여론 물이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단 이기주의의 형성, 무분별한 의제 설정,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글의 내용, 개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개입하여 이견을

<표 8> 게시판 글의 유형별 글의 성격

글의 성격 \ 글의 유형	게시글	머리글	덧글
의견/주장	73 (48.0%)	342 (40.0%)	149 (20.6%)
질문	8 (5.3%)	54 (6.3%)	20 (2.8%)
질문에 대한 대답	-	9 (1.1%)	100 (13.9%)
퍼온 글	17 (11.2%)	72 (8.4%)	8 (1.1%)
욕설	1 (0.7%)	17 (2.0%)	15 (2.1%)
지지/축하	19 (12.5%)	74 (8.6%)	203 (28.1%)
비난	3 (2.0%)	107 (12.5%)	94 (13.0%)
건의/부탁/충고	10 (6.6%)	67 (7.8%)	40 (5.5%)
광고	-	21 (2.5%)	3 (0.4%)
기타	21 (12.8%)	93 (10.9%)	90 (12.5%)
합계	152 (100%)	856 (100%)	722 (100%)

(카이제곱=386.659, 자유도=30, P< .001)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중재자가 없는 상태로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티넉스운동에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적극적 참여자들이 토론의 과정에 중재자로서 개입하고 있었다. 둘째, 사이트 운영자는, 앞서 예시한 것처럼, 반대자의 거짓 논의를 검증할 수 부수적인 게시판을 운영함으로써 게시판의 토론이 이성적이 될 수 있도록 다층적 검증 전략을 제시했다.

사실상, 이기형(2004)의 인터넷 미디어에 관한 연구 결과의 경우, 인터넷 매체들은 그들이 지닌 가능성들을 실현시키기보다는 지나친 당파성과 피아를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진영 멘탈리티와 평가르기, 그리고 이성적인 논의와 대화성의 축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정년과 김재영(2005)의 오마이뉴스의 익명성에 바탕을 둔 독자의견란의 경우 독자들의 공적인 토론의 장을 부분적으로만 난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픈공론장의 난장화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공론장화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의 맥락에서,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 사례에 대한 전반적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은 난장을 가미한 전통적 공론장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한국 사회의 시민 사회운동에 있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는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의 전개가 가능해 졌으며, 이러한 운동을 위한 동원, 선전, 홍보 및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스스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은 1) 일반시민들의 정치과정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고, 2) 오프라인 상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거대자본 및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을 가능하게 하며, 3) 시민사회가 시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참여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네트 상에서 제기하고 동일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안티닉스 운동을 사례로 삼아 운동의 공론화는 첫째,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와 둘째,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면 안티닉스 운동은 사이트 운영자와 그를 따르는 적극적 참여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티닉스 운동의 적극적 참여자의 ID를

중심으로 동조자와 추종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운동의 리더에 대한 충성도 높은 참여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운동 전반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의 다양한 운동 전략이 사이트 방문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안티닉스 운동의 성공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황주성 외(2002)가 지적하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온라인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과 구별될 수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공간과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드러내 준다. 즉, 온라인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갈 때, 온라인의 기술적 특성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관습을 벗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개인 행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범주라 할 수 있는 나이, 학력, 지역, 성별, 직업 등의 변수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황주성 외(2002, 89쪽)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역시 사이버에서 개인의 정체성 변용이나 실험은 사회적 진공상태가 아닌 각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 있게 분석한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의 공론장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익명성을 바탕으로 욕설과 비방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선행된 김경년과 김재영 (2005)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전통적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에 가깝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난장의 요소가 안티닉스 게시글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포함되고 있긴 했지만 공론의 기능을 약화시킬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난장의 요소가 지나쳐 공론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이성적인 참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판 운영자의 전략적

이며 효과적인 대응 역시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장이 전통적인 공론장에 가깝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이 인터넷의 본래적 속성도 아니고 일부 병리적인 심성을 가진 참여자들의 특성도 아니라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승창이 지적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이버 시민운동에서 필요한 조직 체계는 네트워크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들간의 결합력을 높이는 것이 네트워크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사실상,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주체는 조직으로 결집된 행위자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 또는 무형의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어 일정한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의미해석을 공유하는 불특정한 행위자들까지 포함해야 한다(2002, 239쪽).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네트워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개방성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동시에 이 의사결정의 공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라인 운동을 이끄는 개인의 전문성이 성공적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티닉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오프라인 미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티닉스 연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셋째, 유머 사이트의 운용과 같은 네티즌의 감수성에 맞은 연대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네티즌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감수성의 연대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전자서명 게시판>을 활용했다. 다섯째, 운영자는 ‘건강에 유의하자’, ‘토론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등의 연대와 결속을 위한 효과적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여섯째,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 동원을 위해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예로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행동의 일정과 세부 실행계획, 행동 지침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이렇게 게시된 내용들은 다른 웹사이트의 게시판으로 퍼 옮겨지거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네티즌들의 메일함으로 전송되기도 했다. 또 온라인 행동을 알리는 배너가 배포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티닉스 운동의 다양한 전략들은 안티닉스 운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 Ⅱ 참고문헌

- 김경년·김재영 (2005).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 -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2005년 가을호 통권 제 19-3호, 7~41.
- 김승연 (2001). 「시민운동 단체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연구 - 홈페이지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민경배 (2002).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백옥인 (2001). 네티와 사회운동. 홍성욱·백옥인 엮음, 『2001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 창작과 비평사.
- 최방식 (2001). 「국내 시민단체 웹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연구 - 28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영·이종민·김병철 (2002). 인터넷 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권 2호, 115~158.
- 최은정 (2000). 「네티즌의 갈등 구조와 집합 행동에 대한 사례 연구」. 제 65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콜로키움. (2000년 10월 30일).
- 양세진 (2001). 2001년 시민 사회운동 회고와 전망. 『노동사회』, 12월호.
- 이기형 (2004). 「인터넷 미디어: 담론들의 '공론장인가 논쟁의 게토인가?」. 한국언론재단.
- 이경완 (2000). 「정보화와 시민운동: ON-LINE 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민 운동의

- 유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임지택 (2002).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에 관한 연구 - ‘인터넷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상현 (2000). 『정치 여론의 공론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논문.
- 정연정 (2003). 『정보혁명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조동기·김병준·조희경 (2001a). 『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01-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동기·오영석·조희경 (2001b).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01-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항제 (2005). 『민주주의·미디어 체제의 유형화』. 한국 언론정보학회 쟁점과 토론 발표 논문. 한국 프레스 센터.
- 황주성 외. (2002). 『사이버 문화 및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02-45).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황용석 (2003). 인터넷 토론 활성화를 위한 ‘상호 작용성’ 개념 탐구. 『언론과 사회』, 11권 2호, 111~139.
- 하승창 (2002). 인터넷과 시민운동의 변화. 『한국비영리연구』, 제1권 제2호, 217~243.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ia*. London: Sage.
- Ferre, M., Gamson, W., Gerhards, J., & Rucht, D. (2002a). Four models of the public sphere in modern democracies. *Theory & Society*, 31, 289-324.
- Ferre, M., Gamson, W., Gerhards, J., & Rucht, (2002b). *Shaping abortion discourse: democracy and the public spher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uattari, Felix. (1998). 『분자혁명』. 윤수중 역. 푸른숲.
- Habermas, J. (196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abermas, J. (1989).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In S.E. Bonner and B. M. Kellner. (eds). *Critical Theory and Society: a Reader*. London:



Routledge.

- Holsti, O.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 Melucci, A. (1989). *Nomads of the Present: Social Movement and Individual Needs in Contemporary Society*. London.: Hutchinson.
- Negt, O. & Kluge, A. (1993). *Public sphere and experience: Toward an analysis of the bourgeois and proletarian public spher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Poster, M. (1997). Cyberdemocracy: Internet and the public sphere. In D. Porter (Ed.), *Internet culture* (ch.12). New York: Routledge.
- Rogers, D & Joseph D (1994).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유재천 김동규 옴김(1995).『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 서울 나남.188-194쪽.
- Schult, W. (2004). Reconstructing mediatization as an analytic concept.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9(1), 87-1-1.
- Tilly. C. (1988). Social Movements, Old and New. in B. Misztal (ed.),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 and Change*. Greenwich: JAI press
- Wray, S. (1998). *Rhizomes, Nomads, and Resistant Internet Use*.

(최초 투고 및 최종원고 제출 2005. 12. 1)

## The Study on the Process of Public discussion about the On-line civic Social Movement

Jae-Chorl Chung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on-line civic social movement which is based on the individual dimension. This kind of on-line social movement is organized voluntarily by the citizens who have the common concerns about issues and problems raised in the net. In the context, this paper analyzes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formed in the process of public discussion concerned about the anti-Nix movement. And, this study also analyzed who was processed the anti-Nix movement through which steps and what kinds of way in the case of anti-nix movemen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anti-Nix movement is led by the organizer of the movement and the active participants of it.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the various movement strategies of the site organizer were the major reasons of the success of anti-Nix movement.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the discussion board of anti-Nix movement is close to the function and role of traditional public sphere rather than those of the swearwords and libels.

**Key words** : On-line civic social movement, Public sphere, On-line discussion board